

# 평생교육 강사의 교수행동과 성인학습자의 학습몰입의 관계에서 평생교육 강사의 감성지능의 조절효과: 공공 영역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정소영\*\* (인하대학교) · 박상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배을규\*\*\*\* (인하대학교)

## ■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학습자가 인식하는 학습몰입과 평생교육 강사의 교수행동 및 감성지능의 수준을 조사하고, 교수행동과 학습몰입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의 조절 효과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교수행동은 노가운(2016)이 기존 선행연구를 토대로 범주화한 측정 도구를, 학습몰입은 Jackson과 Marsh(1996)의 도구를 김진호(2003)가 성인학습자에 맞게 수정한 측정 도구를, 감성지능은 Wong과 Law(2002)의 도구를 변안한 측정 도구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은 인천광역시 소재 공공영역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성인학습자이며, 총 300명의 자료 분석을 위한 유효 자료로 활용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 강사의 교수행동은 성인학습자의 학습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평생교육 강사의 감성지능(자기감성 이해, 타인감성 이해, 감성활용)은 교수행동과 학습몰입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수행동, 감성지능, 학습몰입 세 변인 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제공하고, 나아가 성인학습자의 학습몰입 증진을 위한 평생교육 현장에의 실천적인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교수행동, 학습몰입, 감성지능, 성인학습자, 평생교육 강사

\* 본 연구는 제1저자의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요약한 것임.

\*\* 제1저자, 인하대학교 인하 위드아이 청소년 진로지원센터 연구원, jsy0810@inha.ac.kr

\*\*\* 공동저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전문연구원, sopark@krivet.re.kr

\*\*\*\* 교신저자,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ekbae@inha.ac.kr

## I. 서론

디지털화 및 생성형 AI 등에 따른 빠르게 변화하는 일터환경과 기술혁신 속에서 자신의 경쟁력과 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여가 및 삶의 질 혹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성인들은 다양한 학습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성인들은 자신의 자기 계발은 물론 직업능력의 함양, 풍요로운 여가 향유 등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성인학습자의 학습은 그들이 당면한 문제해결, 자격증 취득, 새로운 기술 습득, 사회적 관계 형성, 직업적 성취 등 현실적인 요구에 따라 평생학습에 참여한다는 것이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김동률, 2023; 배을규, 2006; 정찬길 외, 2018; Bílá & Kalenda, 2025). 실제로 한국교육개발원의 통계에 따르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는 2007년 68,221개에서 2023년 244,344개로, 교강사 수는 10,124명에서 86,979명으로, 성인학습자 수는 10,124,305명에서 18,381,954명으로 큰 폭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통계청, 2024). 이러한 평생교육의 양적 성장은 성인들의 학습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들의 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습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성인학습자가 자신의 필요에 맞는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의미 있는 학습성과를 달성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렇듯 중요해진 성인학습자의 학습 참여 성과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소로 학습몰입이 강조되고 있다. 학습몰입은 성인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경험에 만족하고 몰입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유영주, 김진모, 2014; 정찬길 외, 2018), 학습 과정에서 스스로 동기부여하고, 학습 그 자체로 즐거움을 느끼며 학습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성인학습자의 학습몰입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강사의 역할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평생교육 강사의 교수 행동에 주목해야 한다. 평생교육 강사의 역할과 역량은 성인학습자의 효과적인 학습을 보장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처럼,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현장에서 교육 내용과 성인학습자를 이어주는 평생교육 강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교수행동은 강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며,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교수-학습 과정 전반에서 나타나는 평생교육 강사의 사고, 가치, 행동을 포괄한다(권대봉 외, 2008; 박경은, 2022). 구체적으로 교수행동은 수업 중 평생교육 강사가 보이는 인지적, 정서적, 심동적 행동을 포함하며(박경은, 2022; Ormell, 1974), 교수-학습 상호작용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와 같이 평생교육 강사가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평생교육 장면에

서 긍정적 교수-학습활동을 전개한다면, 성인학습자들의 학습몰입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성인학습자는 학령기 이후 학습 참여에 어려움을 겪거나, 지능 감소 등 여러 이유로 인지적 능력이 감소함에 따라 학습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김효선, 2021; Cattell & Horn, 1978). 이를 고려하면, 평생교육 강사는 교수학습 활동 중 성인학습자들이 정서적으로 고양되어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감정을 이해 및 조절하고, 정서적으로 이끌어 줄 필요가 있다. 즉, 평생교육 강사는 성인학습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욕구를 파악하여 학습 참여를 촉진하는 능력으로서 감성지능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주형철 외, 2012). 실제로 평생교육 강사와 성인학습자 간 신뢰 관계를 형성할수록 긍정적 학습 태도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정무관, 2009; 최성수, 권용주, 2012). 평생교육 강사로부터의 인정, 칭찬, 애정, 신뢰감, 관심 등 정서적 지지는 성인학습자가 학습에 몰입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김태리 외, 2026), 평생교육 강사의 감성지능은 평생학습 맥락에서 강사와 성인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인학습자의 학습몰입의 관계를 극대화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 즉, 평생교육 강사의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성인학습자의 감정과 욕구를 세심하게 배려하여 성인학습자의 신뢰를 얻음으로써 학습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학습 참여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 의지를 북돋아 주게 되고, 이는 결국 평생교육 강사가 전달하는 강의 활동을 통한 성인학습자들의 학습몰입 제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성인학습자가 인식하는 평생교육 강사의 교수행동이 자신의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고, 그 영향 관계를 평생교육 강사의 감성지능이 조절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가설 1. 공공영역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성인학습자가 인식한 평생교육 강사의 교수행동이 그들의 학습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가설 2. 공공영역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성인학습자가 인식한 평생교육 강사의 감성지능은 평생교육 강사의 교수행동과 성인학습자의 학습몰입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이를 통해 평생교육 강사의 교수행동과 감성지능, 성인학습자의 학습몰입 연구 변인 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시사점과 성인학습자의 학습몰입 증진을 위한 공공영역 평생교육 현장에의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평생교육의 주체로서 평생교육 강사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공학 등 첨단 기술의 발달은 노동시장과 산업 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기존 일자리와 직무가 사라지거나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개인이 일생 동안 평생학습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지 않으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를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국혜수 외, 2025). 이에 따라 평생학습은 단순한 인문교육 및 직업능력개발의 범위를 넘어,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 사회적 기술 등과 같은 소프트스킬(Soft Skill)의 개발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국혜수 외, 2025; 류청산, 2018; 이효영, 2018).

더욱이 평생학습의 필요성은 인구구조의 변화에서도 나타난다. 평균 수명의 연장과 고령화 사회의 도래는 중·장년층과 고령자의 학습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인구 고령화는 새로운 학습 기회와 사회적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평생학습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이은주 외, 2022). 대한민국 사회도 마찬가지로 고령화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으며, 학습 참여율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7년 29.8%였던 평생학습 참여율은 2019년 43.4%, 2023년에는 46.9%로 상승하며, 평생학습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다(통계청, 2024). 이는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따라 성인학습자들이 개인적 발전을 위해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향후 평생학습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때 평생교육 현장에서 직접 가르치는 활동을 수행하는 평생교육 강사는 성인학습자와 가장 가깝게 만나는 사람이다(강가예, 2022). 또한 평생교육 강사는 성인학습자와 교육 내용을 연결하고 효과적인 학습활동을 도와주는 역할뿐 아니라, 평생교육 기관의 성과와 경쟁력 제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유수란 외, 2018). 따라서 평생교육 강사의 교육 전문성은 성인학습자들에게 제공되는 평생교육의 품질과 성과에 직결되는 동시에, 크게는 평생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된다(박경희, 한상훈, 2016). 그러나 현행 평생교육 기관에서는 일회성 강사 채용의 비중이 높은 관계로, 평생교육 강사의 전문성을 중장기적인 비전과 계획하에 체계적, 안정적으로 배양하고 심화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보

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박지현, 2019;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23). 특히 공공영역 평생학습관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이 운영주체가 되어 특정 직업이나 소속 기관과 무관하게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니며, 이에 따라 참여 동기와 인구사회학적 배경이 상이한 성인학습자들이 폭넓게 유입된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이질성이 높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영역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성인학습자의 학습몰입 제고를 위한 평생교육 강사의 교수행동과 감성지능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고, 본 연구 맥락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 2. 평생교육 강사의 교수행동

평생교육 강사의 교수행동은 평생교육 현장에서 성인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행되는 일련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다양한 연구자들은 교수행동의 구성 요소를 각각 다각적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지만, 대부분 학습 촉진과 상호작용, 체계적 수업 운영이라는 공통된 목표에 주목하고 있다(이영희, 현영섭, 2021). 이러한 교수행동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성인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동기를 촉진하고 학습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권대봉 외, 2008). 특히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성인학습자는 각자 상이한 사회적 배경과 개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맞춤형 교수행동이 요구된다. 강사가 성인학습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교수행동을 실천할 때, 학습자는 학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높은 수준의 몰입 상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평생교육 강사의 교수행동은 평생교육 현장에서 성인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행되는 일련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양한 연구자들은 교수행동의 구성요소를 정의하며 각각 상이한 접근을 제시했지만, 대부분 학습 촉진과 상호작용, 체계적 수업 운영이라는 공통된 목표에 주목하고 있다(Borich, 2000; Murray, 1983). 이러한 교수행동의 구성요인을 고려할 때, 교수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학습자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학습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는 교수자의 학습환경 조성 능력에 크게 의존한다(권대봉 외, 2008). 평생교육 강사는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학습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조력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평생교육 현장에서는 시간과 자원의 제약, 일회

성 프로그램의 증가로 인해 강사들이 체계적인 교수행동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백혜현, 2013). 이에 따라 효과적인 평생교육 강사의 교수행동을 통해 학습자가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 3. 성인학습자의 학습몰입

평생교육 맥락에서 학습몰입은 성인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와 집중력을 투입하는 심리적 몰입 상태를 의미하며(공숙희 외, 2025; 정찬길 외, 2018), 성인학습자의 학습성고를 예측하는 핵심 변인으로 다수의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조선희, 유미나, 2025). 학습몰입의 중요성은 성인학습자들이 경험하는 학습의 효과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데서도 드러난다. 몰입 상태에 있는 학습자는 학습 활동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지며, 이를 통해 학습 동기가 더욱 강화되고 다음 학습참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학습 과정을 수행하고 이를 실생활과 연결 지어 해석할 때, 학습 내용이 단순한 정보로 남지 않고 삶과 직업적 성과로 전환될 수 있다(Mezirow, 2000).

학습몰입의 핵심 구성 요소는 도전과 기술의 균형, 명확한 목표, 구체적인 피드백, 행위와 의식의 통합, 과제에 대한 집중, 통제감, 자의식의 상실, 시간 감각의 왜곡, 그리고 자기 목적적 경험이다. 각 요소는 학습자가 학습활동에 몰입하기 위해 필수적인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들 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될 때 학습자는 깊은 몰입 경험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새로운 업무 소프트웨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자신의 기존 업무경험과 학습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면, 학습의 효용성을 빠르게 인식하게 된다. 이는 직무 성과 향상뿐만 아니라 학습의 가치를 체감하게 하여 학습에 더욱 몰입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학습몰입은 결국 성인학습자가 학습 과정을 통해 자아실현과 직업적 성과를 달성하고, 학습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다. 성인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몰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실생활과 연계된 학습 내용과 학습자의 경험을 반영한 교육 설계가 필요하며,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학습환경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성인학습자는 학습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경험하며 지속적인 평생학습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4. 평생교육 강사의 감성지능

감성지능은 개인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통제하며,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원활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Goleman, 1995). 이는 인지적 지능(IQ)과는 다른 차원의 능력으로, 감정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조절, 그리고 이를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의 정서적 역량을 포함한다. 감성지능은 성인학습자에게 몰입과 성과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며(김태리 외, 2026),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환경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의미한다(Wong & Law, 2002). 감성지능의 구성요소는 연구자들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자기 인식, 타인 인식, 감정의 조절, 감정의 활용이라는 네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된다(Salovey & Mayer, 1990; Wong & Law, 2002). 이러한 구성 요소들은 개인의 감정적 반응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조절하여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정서적 경험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각 구성 요소는 서로 상호작용하며, 개인이 학습과 직무 환경에서 높은 성과와 몰입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이점이 있다(Goleman, 1998).

이러한 감성지능은 교수학습 맥락에서도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져 왔다. 실제로 선행연구에서도 감성지능이 높은 교수자는 학습자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을 통해 학습동기와 참여도를 높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학습성과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ar-On, 2000; Goleman, 1995). 이러한 감성지능을 보유한 평생교육 강사들은 성인학습자들의 자기효능감, 학습만족, 학업지속의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성지선, 2021), 나아가 창의적 문제해결과 혁신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서승호, 2025). 즉, 평생교육 강사의 높은 감성지능은 성인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중요한 핵심 역량으로 논의되어 왔다. 다시 말해 평생교육 강사의 감성지능은 학습환경에서 성인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특히, 성인학습자는 자기주도성과 경험 기반 학습 특성을 지니므로, 강사의 정서적 민감성과 공감적 소통능력은 학습참여와 몰입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평생교육 강사의 감성지능은 성인학습자의 학습경험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학습성과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볼 수 있다.

## 5. 연구 변인 간 관계

평생교육 강사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 강사의 전문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구체적인 자격 요건 등이 제시되지 못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강가예, 2022). 실제로 평생교육 강사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 정책적 규정도 미비하고, 관련 교육기관들의 공식적 지원이나 훈련·연수의 기회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유수란 외, 2018). 이러한 제도적 한계 속에서 평생교육 강사의 전문성은 강사 개인의 역량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수업 현장에서 직접 구현되는 교수행동과 감성지능과 같은 역량이 성인학습자의 학습 경험과 몰입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박경은, 2022). 나아가 성인학습자는 다양한 생애 과제와 정서적 부담을 안고 학습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생교육 강사가 성인학습자의 감정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정서적으로 이끌어 주는 감성지능 역시 중요한 역량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평생교육 강사가 효과적인 교수행동을 실천하고 높은 감성지능을 발휘할 때, 성인학습자의 학습몰입이 증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변인의 역할에 주목하여 평생교육 강사의 교수행동과 감성지능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먼저 평생교육 강사의 교수행동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교수행동이 성인학습자의 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권대봉 외(2008)는 성인교수자의 교수행동 특성과 성인학습자의 학습몰입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교수행동이 학습몰입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또한 석지나 외(2023)의 연구에서는 온라인 실시간 평생교육 상황에서 강사의 교수행동 수준은 학습전이와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희와 현영섭(2021)의 연구에 따르면, 기업교육에서 강사의 교수행동 가운데 상호작용 역량과 전문성이 학습전이 성과를 높이는 요인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성인학습자의 학습몰입을 증진하는 데 있어 평생교육 강사의 구체적인 교수 전략과 상호작용 방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또한 선행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공숙희 외, 2025; 김규영, 이희수, 20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영역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성인학습자가 인식한 평생교육 강사의 교수행동이 그들의 학습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공통적으로 평생교육 강사의 교수 전문성은 성인학습자의 학습성과를 제고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실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 1을 설정하였다.

연구 가설 1. 공공영역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성인학습자가 인식한 평생교육 강사의 교수 행동이 그들의 학습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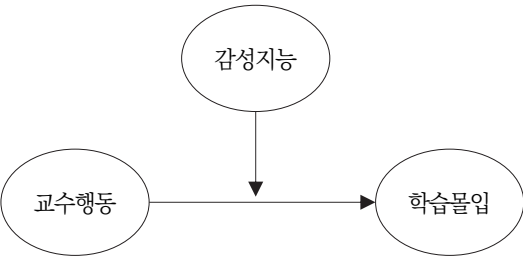
그리고 성인학습자는 학습 과정에서 가정이나 일터 여건으로 발생 가능한 스트레스, 시간 부족, 경제적 부담 등 여러 가지 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학습몰입을 방해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 강사가 성인학습자의 조건을 이해하고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수행함으로써 그들이 제공하는 교수학습 활동에 참여하는 성인학습자들의 학습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평생교육 강사의 감성지능은 평생교육 강사의 교수행동이 성인학습자의 학습몰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그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조절 변인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는 동일한 교수행동이라 하더라도 평생교육 강사의 감성지능 수준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학습몰입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평생교육 강사의 감성지능은 강사의 교수행동이 성인학습자의 학습몰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그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조절 변인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감성지능이 개인이 처한 일터 및 학습 환경에서 경험하는 학습 메커니즘 혹은 업무 성과를 극대화시킨다, 즉 감성지능의 조절 효과를 실증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배을규 외(2017)는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인식하는 감성지능은 그들이 제공받는 멘토링 기능과 경력몰입의 관계를 강화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정향기(2022)의 연구에서는 감성지능 수준에 따라 무형식 학습이 창의적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무형식 학습의 간접효과가 증가되어 창의적 문제해결을 촉진하는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또한 이지혜와 이정학(2018)은 골프 지도자의 감성지능이 학습자의 운동몰입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며, 지도자에 대한 신뢰 수준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감성지능이 단순한 정서 변인을 넘어 교수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 맥락에서 실질적인 조절 기능을 수행함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평생교육 강사의 교수행동이 성인학습자의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감성지능이 조절하는지를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 2를 설정하였다.

연구 가설 2. 공공영역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성인학습자가 인식한 평생교육 강사의 감성지능은 평생교육 강사의 교수행동과 성인학습자의 학습몰입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 가설 설정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 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 2.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모집단은 성인학습자이다. 그러나 모집단 전체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성태제, 시기자,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공공영역 평생학습관(시·군·구 평생학습관, 교육청 평생학습관 등)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수 중인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표집은 비확률표집(non-probability sampling) 방법 중 유의 표집 방법을 활용하였다. 유의표집 방식은 표본 대표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모집단 규모와 분석 방법을 함께 고려하여 최소 요구 표본 수를 상회하는 수준이 되도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23년 평생교육 통계 결과에 따르면, 인천지역 공공영역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성인학습자는 총 55,817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본 연구의 모집단 규모로 설정하였다.

설문조사 진행을 위한 표본 수 산출은 자료 분석 방법(위계적 회귀분석과 독립변인과 통제변인 수) 등을 고려하여 설문조사에 필요한 최소표본 수를 산출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F-test(linear multiple regression fixed model r2 increase) 유의 수준

.05, 효과 크기 .15, 통계적 검정력 .95, 그리고 예측변인을 독립변인, 조절변인, 상호작용항 3개와 통제변인 10개로(성별, 연령, 최종학력, 직업, 평균 연간 평생학습 참여, 전체 평생학습 참여기간, 평생학습 참여동기, 참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야, 결혼여부, 구별 응답 현황)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이 연구에 필요한 최소 표본 수는 119개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 분석을 활용하여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므로, 150~200개의 최소 표본이 필요하다 고 볼 수 있다. 이에 두 가지 자료 분석 방법을 고려한 최소 표본은 200개로 판단하였으며, 설문조사 회수율을 고려하여 최소 표본의 1.5배인 300명을 목표 표본 크기로 설정하였다.

설문조사는 2024년 8월 19일부터 동년 9월 22일까지 실시되었다. 그 결과 총 304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응답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을 탐지하기 위해서 한 줄 응답을 탐지하여 제거하였다. 연속된 문항에 대해 응답자가 비정상적으로 동일한 응답을 함으로써 같은 응답으로 구성된 긴 줄이 형성되는 경우, 해당 응답자가 설문에 임하는 태도가 불성실하다고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박원우 외, 2020). 문항 및 항목의 개수를 고려하여 비정상적 패턴을 보이는 값에 대한 한 줄 응답의 확인 결과, 전체 응답자의 응답 결과가 비정상적 패턴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회수된 자료 중 평생학습 참여동기 중 구체적 동기 없음(무동기) 4부를 제외한 300부를 유효 자료로 활용하였다(유효 자료율 98.68%).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 구분               |                 | 빈도(명) | 비율(%) | 구분                      |         | 빈도(명) | 비율(%) |
|------------------|-----------------|-------|-------|-------------------------|---------|-------|-------|
| 성별               | 여성              | 199   | 66.3  | 결혼여부                    | 기혼      | 237   | 79    |
|                  | 남성              | 101   | 33.7  |                         | 미혼      | 63    | 21    |
| 연령 <sup>1)</sup> | 만30세 이하         | 4     | 1.3   | 참여 평생<br>학습 프로<br>그램 분야 | 직업능력교육  | 68    | 22.7  |
|                  | 만31세~40세        | 85    | 28.3  |                         | 문화예술교육  | 79    | 26.3  |
|                  | 만41세~50세        | 72    | 24    |                         | 인문교양교육  | 62    | 20.7  |
|                  | 만51세~60세        | 67    | 22.3  |                         | 시민참여 교육 | 43    | 14.3  |
|                  | 만61세~70세        | 58    | 19.3  |                         | 기초문해교육  | 29    | 9.7   |
|                  | 만71세 이상         | 14    | 4.7   |                         | 학력보완교육  | 19    | 6.3   |
| 직업               | 직장인             | 80    | 26.7  | 연간 평균<br>평생<br>학습<br>참여 | 최초참여    | 57    | 19    |
|                  | 자영업<br>(프리랜서포함) | 53    | 17.7  |                         | 1~3번    | 154   | 51.3  |

| 구분                                 |                      | 빈도(명) | 비율(%) | 구분                           |           | 빈도(명) | 비율(%) |
|------------------------------------|----------------------|-------|-------|------------------------------|-----------|-------|-------|
|                                    | 학생                   | 27    | 9     | 경험 <sup>2)</sup>             | 4~5번      | 57    | 19    |
|                                    | 가사종사자                | 70    | 23.3  |                              | 6~7번      | 21    | 7     |
|                                    | 무직                   | 34    | 11.3  |                              | 8~10번     | 6     | 2     |
|                                    | 기타                   | 36    | 12    |                              | 10번 초과    | 5     | 1.7   |
| 평생<br>학습<br>참여<br>목적 <sup>3)</sup> | 사회성 향상<br>(대인관계 등)   | 16    | 5.3   | 구별<br>응답<br>현황 <sup>4)</sup> | 중구        | 16    | 5.3   |
|                                    | 배움에 대한 욕구            | 83    | 27.7  |                              | 동구        | 10    | 3.3   |
|                                    | 자격증 취득을<br>위해서       | 19    | 6.3   |                              | 미추홀구      | 37    | 12.3  |
|                                    | 취업을 위해서              | 27    | 9     |                              | 연수구       | 125   | 41.7  |
|                                    | 사회참여, 봉사<br>활동을 위해서  | 31    | 10.3  |                              | 남동구       | 36    | 12    |
|                                    | 여가 및 취미시간<br>활용을 위해서 | 47    | 15.7  |                              | 부평구       | 35    | 11.7  |
|                                    | 주변 사람의 권유            | 5     | 1.7   |                              | 계양구       | 18    | 6     |
|                                    | 자아개발                 | 66    | 22    |                              | 서구        | 23    | 7.7   |
|                                    | 퇴직후를 위해<br>(노후를 위해)  | 6     | 2     |                              | 중학교 졸업 이하 | 7     | 2.3   |
| 전체 평생<br>학습 참여<br>기간               | 3개월이하                | 40    | 13.3  | 최종<br>학력 <sup>5)</sup>       | 고등학교 졸업   | 66    | 22    |
|                                    | 6개월~1년               | 55    | 18.3  |                              | 전문대학 졸업   | 67    | 22.3  |
|                                    | 1년~2년                | 61    | 20.3  |                              | 4년제 대학 졸업 | 117   | 39    |
|                                    | 2년~3년                | 55    | 18.3  |                              | 대학원 이상    | 43    | 14.3  |
|                                    | 3년~5년                | 38    | 12.7  |                              | 전체        |       | 300   |
|                                    | 5년이상                 | 51    | 17    |                              |           |       |       |

- 1) 응답자의 분포를 고려하여 ① 만 40세 이하, ② 만 41세~50세, ③ 만51세~60세, ④ 만 61세 이상으로 응답 범주를 조정하여 통계 분석에 활용하였음.
- 2) 응답자의 분포를 고려하여 ① 최초참여, ② 1~3번, ③ 4번 이상으로 응답 범주를 조정하여 통계 분석에 활용하였음.
- 3) 응답자의 분포를 고려하여 ① 목표지향(자격증 취득, 취업), ② 활동지향(사회성 향상, 사회참여와 봉사, 여가와 취미, 주변 권유, 퇴직 후 노후), ③ 학습지향(배움에 대한 욕구, 자아개발) 응답 범주를 조정하여 통계 분석에 활용하였음.
- 4) 응답자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한 인구통계학 변인으로 실제 연구 변인과 직접적 관련성은 부재하기에 통계 분석에 활용하지 않음.
- 5) 응답자의 분포를 고려하여 ① 고졸 이하, ② 전문대학 졸업, ③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으로 응답 범주를 조정하여 통계 분석에 활용하였음.

### 3. 측정 도구의 구성 및 검증

본 연구를 위한 측정 도구는 교수행동, 학습몰입, 감성지능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외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 묻는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각 측정 도구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학습자가 인식하는 평생교육 강사의 교수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Berge(1995)의 4가지 분류 체계를 토대로 교수행동을 재구성한 노가운(2016)의 측정 도구를 활용하였다. 본 측정 도구는 4개 하위요인 3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교수적 행동은 평생교육 강사의 내용 전문성을 기초로 하여 학습을 안내하는 평생교육 강사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을 의미한다(예시: “수업의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학습활동에 맞게 가공, 분류하여 성인학습자에게 제공한다” 등). 다음으로 관리적 행동은 전체적인 교수학습 과정을 관리, 지원하는 행동으로서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유지시키기 위한 행동과 성인학습자의 이해도를 평가하는 행동을 의미한다(예시: “성인학습자에게 학습 과정에 대해서 수시로 피드백을 제공한다”, “성인학습자의 질문에 신속하게 응답한다” 등). 셋째, 사회적 행동은 성인학습자 간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지원하는 행동을 의미한다(예시: “성인학습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성인학습자들끼리 활발히 공유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도한다”, “성인학습자 간의 다양한 형태(예. 학습 공동체 구성, 팀 프로젝트 수행)의 협동 학습을 촉진한다” 등). 마지막으로 기술적 행동은 학습에서 필요한 기술적 조력 제공과 행정 지원을 해주는 행동을 의미한다(예시: “학습에 필요한 도구 사용법(예시: 교재 및 워크북 활용, 온라인 화상강의 등)에 대해 성인학습자들에게 사전에 안내한다”, “성인학습자들끼리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도와준다” 등). 측정 문항의 안면타당도와 내용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분야 학계 전문가 3인과 성인학습자 3인에게 문항 검토를 의뢰하였다. 이후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문항 표현의 명확성, 구성개념과의 부합성, 응답자의 이해 가능성을 중심으로 문항 내용을 수정하였으며(예: 도입 또는 요약을 제시한다. → 수업 시작 전 강의 관련 내용으로 흥미를 유발하고, 강의 마무리 시 요약을 제공한다. → 강의 시작 시에는 강좌 소개를 강의 종료 시에는 학습 내용을 요약해 준다). 설문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난 후의 현재 시점에서 본인의 상태에 동의하는 정도로 각 문항을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둘째, 성인학습자의 학습몰입 인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Jackson과 Marsh(1996)의 측정 도구를 김진호(2003)가 변안한 학습몰입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측정 도구는 단일요인의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1개의 역산 문항 포함). 학습몰입은 성인학습자가 학습활동에 완전히 몰두하여 즐거움을 느끼고 의미 있는 학습을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예시: “나는 제대로 학습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나는 학습할 때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다” 등이 있다). 측정 문항의 안면 타당도와 내용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학계 전문가 3인과 모집단 대표자(성인학습자) 3인의 검토를 거쳐 문항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모든 측정 문항을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셋째, 성인학습자가 인식한 평생교육 강사의 감성지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Wong과 Law(2002)의 측정 도구를 번안하여 활용하였다. 본 측정 도구는 자기감성 이해, 타인감성 이해, 감성활용, 감성조절의 4개 요인이 각 4개 문항씩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감성 이해는 자신의 감성을 잘 이해하고 이를 표현하는 능력을 의미한다(예시: “자신이 행복한지 아닌지를 늘 알고 있다”,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한다” 등). 다음으로 타인감성 이해는 타인의 표정과 행동을 통하여 그들의 감성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예시: “타인의 감정을 그들의 행동을 보고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잘 이해한다” 등). 셋째, 감성 활용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건설적으로 감성을 활용하는 능력을 말한다(예시: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스스로 유능한 사람이라고 여긴다 등). 마지막으로 감성조절은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감성을 이해하거나 억제하여 주어진 상황에 따라 적절한 행동으로 감성을 나타내는 능력을 의미한다(예시: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이성적으로 대처한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려고 노력한다 등). 측정 도구는 원 측정 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한 배을규 외(2017)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측정 문항의 안면 타당도와 내용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학계 전문가 3인과 성인학습자 3인의 검토를 거쳐 문항 내용을 성인학습자의 맥락에 맞게 수정하였다(예: 나는 스스로 행복한지 아닌지를 늘 알고 있다. → 내가 참여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는 스스로 행복한지 아닌지를 늘 알고 있는 것 같다, 나의 멘토는 스스로 유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 → 내가 참여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는 스스로 유능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 같다). 설문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성인학습자가 강사의 감성지능을 파악하는 정도를 질문하는 것으로 모든 문항을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최종학력, 직업, 평균 연간 평생학습 참여, 전체 평생학습 참여 기간, 평생학습 참여 목적, 참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야, 결혼 여부, 구별 응답 현황에 대해 질문하

었다.

본 연구에 사용한 세 가지 측정 도구의 구인 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검증하기 위하여 전체 측정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교수행동은 교수적 행동, 관리적 행동, 사회적 행동, 기술적 행동으로, 감성지능은 자기감성이해, 타인감성이해, 감성활용, 감성조절의 2차 요인구조, 학습몰입은 1차 요인 구조로 설정하고 확인적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는 여러 선행 연구들을 통해 타당성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김계수, 2007). 그리고 교수행동과 감성지능은 하위요인별 신뢰도를 확인한 후, 각 구성 개념의 하위 측정 문항들의 산술 평균을 활용한 다차원 접근법의 항목 묶음을 실시하여 1차 요인 구조로 변환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우종필, 2015). 본 연구에서 모형적합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절대적합지표로 Q값 5.0 미만(Wheaton, Muthen, Alwin, & Summers, 1977), RMR .08 미만(Hu & Bentler, 1999), RMSEA .1 이하(Browne & Cudeck, 1993; MacCallum, Browne & Sugawara, 1996), 증분적합지수 TLI, IFI, CFI .8 이상(Abedi, Rostami & Nadi, 2015; Bollen, 1989; Doll & Xia, 1997)으로 설정하였다.

최초 전체 측정모형 검증 결과, 학습몰입의 5번(역문항: 나는 내가 얼마나 잘 배우고 있는지 모르겠다.)과 9번 문항(나는 기회가 된다면 다른 수업도 배우고 싶다.)의 표준화 계수가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문항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5번 문항은 학습에 대한 확신과 관련하여 4번 문항과 유사한 맥락으로, 9번 문항은 현재 참여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의 인식을 확인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삭제한 후 재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형적합도는 Q값 4.453, RMR .043, GFI .832, NFI .865, TLI .869, CFI .891, RFI .837, RMSEA .100으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학습몰입 8문항의 표준화 계수가 .470으로 기준치인 .5에는 소폭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원도구의 의미를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자, 본 분석 데이터의 표본 수인 300개를 고려한 표준화 계수는 .470도 수용가능한 기준으로 포함될 수 있다(Hair et al., 2006). 이를 제외한 모든 측정변인의 표준화 계수가 .5 이상, 모든 잠재변인의 개념 신뢰도가 .7 이상으로 나타났고 평균 분산 추출 지수의 경우 모두 .5 이상으로 나타나 개념타당성, 수렴타당성이 확보되었다.

6) 개념신뢰도 =  $(\sum \text{표준화계수})^2 / ((\sum \text{표준화계수})^2 + \text{측정 변인의 오차 합})$

〈표 2〉 전체 측정 모형 검증 결과

| 잠재<br>변인  | 측정변인                                                                                                                                  | 비표준화<br>계수 | 표준<br>오차 | 기각비       | 표준화<br>계수 | 개념<br>신뢰도 <sup>6)</sup> | 분산 추출<br>지수 <sup>7)</sup> |
|-----------|---------------------------------------------------------------------------------------------------------------------------------------|------------|----------|-----------|-----------|-------------------------|---------------------------|
| 교수<br>행동  | 교수적 행동                                                                                                                                | 1.000      | .102     | -         | .864      | .964                    | .872                      |
|           | 관리적 행동                                                                                                                                | 1.042      | .048     | 23.309*** | .933      |                         |                           |
|           | 사회적 행동                                                                                                                                | 1.073      | .089     | 21.362*** | .892      |                         |                           |
|           | 기술적 행동                                                                                                                                | 1.055      | .203     | 17.131*** | .789      |                         |                           |
| 학습<br>몰입  | 학습몰입1                                                                                                                                 | 1.000      | .506     | -         | .597      | .878                    | .516                      |
|           | 학습몰입2                                                                                                                                 | 1.206      | .306     | 9.951***  | .756      |                         |                           |
|           | 학습몰입3                                                                                                                                 | 1.109      | .280     | 9.840***  | .743      |                         |                           |
|           | 학습몰입4                                                                                                                                 | 1.212      | .246     | 10.237*** | .792      |                         |                           |
|           | 학습몰입6                                                                                                                                 | .770       | .468     | 7.470***  | .512      |                         |                           |
|           | 학습몰입7                                                                                                                                 | .779       | .426     | 7.734***  | .535      |                         |                           |
|           | 학습몰입8                                                                                                                                 | .679       | .456     | 6.964***  | .470      |                         |                           |
| 감성<br>지능  | 자기감성이해                                                                                                                                | 1.000      | .139     | -         | .849      | .922                    | .749                      |
|           | 타인감성이해                                                                                                                                | .775       | .216     | 13.504*** | .708      |                         |                           |
|           | 감성활용                                                                                                                                  | .722       | .208     | 13.017*** | .688      |                         |                           |
|           | 감성조절                                                                                                                                  | .898       | .202     | 15.092*** | .767      |                         |                           |
| 모형<br>적합도 | x <sup>2</sup> =387.414(p<.001), df=87, Q값=4.453, RMR=.043, GFI=.832 NFI=.865, TLI=.869,<br>CFI=.891, RFI=.837, RMSEA=.100(.097~.117) |            |          |           |           |                         |                           |

또한, 교수행동, 감성지능, 학습몰입 변인 간의 판별 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계수의 신뢰구간<sup>8)</sup>이 1.0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분석 결과, 각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의 신뢰구간이 1.0을 포함하지 않아 세 변인 간 구분이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표 3〉 판별 타당성 검증 결과

| 잠재변인  | 상관계수<br>( $\phi$ ) | 표준 오차<br>(S.E.) | 상관계수의 신뢰구간 |      |
|-------|--------------------|-----------------|------------|------|
|       |                    |                 | 하한         | 상한   |
| X ↔ Y | .705               | .028            | .644       | .756 |
| X ↔ W | .839               | .029            | .780       | .896 |
| Y ↔ W | .778               | .033            | .709       | .841 |

다음으로 본조사에서 수집된 각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  $\alpha$ 를 활용하여 각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수행동은 전체 신뢰도 .970, 각 하위 요인별

7) 분산추출지수 =  $(\sum \text{표준화계수}^2) / ((\sum \text{표준화계수}^2) + \text{측정 변인의 오차 합})$

8) 상관계수의 신뢰구간=상관계수 $\pm(2\times$ 표준오차)

신뢰도는 .842~.937로, 학습몰입은 .826, 감성지능은 전체 신뢰도 .931,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822~.905로 나타났다. 이에 측정 도구 모두 양호 이상의 내적 일관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표 4〉 본 조사 측정 도구 신뢰도

| 구분   |        | Cronbach $\alpha$ |      |
|------|--------|-------------------|------|
| 변인명  | 하위요인   | 요인별               | 전체   |
| 교수행동 | 교수적 행동 | .926              | .970 |
|      | 관리적 행동 | .937              |      |
|      | 사회적 행동 | .903              |      |
|      | 기술적 행동 | .842              |      |
| 학습몰입 |        | -                 | .826 |
| 감성지능 | 자기감성이해 | .882              | .931 |
|      | 타인감성이해 | .879              |      |
|      | 감성활용   | .822              |      |
|      | 감성조절   | .905              |      |

한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 방법을 활용하여 동일한 시점에서 모든 변인을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동일 방법 편의(common method bias)’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동일 방법 편이란 동일한 방법에 의해 두 개 이상의 변인을 측정할 경우, 측정 변인 간 상관관계가 왜곡되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Podsakoff et al., 2003). 따라서 Harman의 단일요인 검증 방법에 따라 교수행동, 학습몰입, 감성지능 측정 도구의 모든 문항을 투입한 후 최대우도 분석(직접 오블리민)을 실시하여 동일 방법 편이 발생 여부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고유치 1.0 이상의 성분은 총 10개임을 확인하였으며 추출 제공 적재 값 중 가장 큰 것은 24.303%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통계적 측면에서 특정 요인의 설명력이 절대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즉, 초기 고유치가 1.0 이상인 요인이 한 개만 도출되거나 복수의 요인이 도출될 경우에는 특정 요인의 설명력이 절대적일 경우 동일 방법 편이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준에 비취볼 때,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에서는 동일 방법 편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4. 자료 분석 방법

설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9.0, PROCESS macro 4.2, AMOS 29.0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성인학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성인학습자가 인식하는 학습몰입과 평생교육 강사의 교수행동 및 감성지능 수준 파악을 위한 기술통계 분석(왜도, 첨도 포함), 변인 간 상관관계 확인을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측정 도구의 타당도 분석을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고,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다. 넷째, 성인학습자가 인식한 평생교육 강사의 교수행동 수준과 그들의 학습몰입 수준 간의 관계에서 평생교육 강사의 감성지능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PROCESS Procedure for SPSS Version 3.5.3<sup>9)</sup>을 활용한 Model 1, 조절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결과분석

### 1. 연구 변인별 수준 및 상관관계 분석

성인학습자가 인식한 평생교육 강사의 교수행동과 감성지능, 그리고 성인학습자의 학습몰입의 기술 통계량을 산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 결과, 각 변인의 평균값은 교수행동 4.060 학습몰입 3.805, 감성지능 3.921로 나타났다. 그리고 왜도 -.368 ~ .159, 첨도 -.836 ~ .344로 나타나 왜도 절댓값 2.0, 첨도 절댓값 4.0보다 작은 것을 확인하여(배병렬, 2021), 수집된 데이터의 정규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표 5> 연구변인의 기술통계량 및 정규성 검증 결과

| 변인   |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   | 최대   | 왜도    | 첨도    |
|------|--------|-------|------|------|------|-------|-------|
| 교수행동 | 교수적 행동 | 4.135 | .636 | 2.60 | 5.00 | -.209 | -.836 |
|      | 관리적 행동 | 4.096 | .614 | 2.33 | 5.00 | -.071 | -.607 |
|      | 사회적 행동 | 4.047 | .661 | 2.00 | 5.00 | -.167 | -.691 |
|      | 기술적 행동 | 3.963 | .734 | 1.67 | 5.00 | -.297 | -.438 |
|      | 전체     | 4.060 | .596 | 2.68 | 5.00 | .057  | -.821 |
| 학습몰입 |        | 3.805 | .477 | 2.33 | 5.00 | .088  | .344  |

9) 2021년 2월 11일에 홈페이지(<http://processmacro.org/download.html>)를 통해 배포되었다.

|      | 변인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   | 최대   | 왜도    | 첨도    |
|------|--------|-------|------|------|------|-------|-------|
| 감성지능 | 자기감성이해 | 3.745 | .707 | 1.50 | 5.00 | -.130 | -.243 |
|      | 타인감성이해 | 3.974 | .658 | 2.00 | 5.00 | -.300 | -.254 |
|      | 감성활용   | 4.005 | .629 | 2.25 | 5.00 | -.323 | -.313 |
|      | 감성조절   | 3.959 | .702 | 1.75 | 5.00 | -.368 | -.173 |
|      | 전체     | 3.921 | .556 | 2.38 | 5.00 | .159  | -.423 |

다음으로 성인학습자가 인식한 평생교육 강사의 교수행동과 감성지능, 그리고 그들의 학습 몰입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주요 변인 간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의 <표 6>과 같다. 투입된 인구통계학 변인 중 성별, 최종학력, 직업, 참여 목적, 참여 프로그램 분야, 결혼 여부, 연령, 평균 연간 평생학습 참여 횟수, 전체 평생학습 참여 기간 중 두 개의 범주를 갖지 않는 인구통계학 변인은 더미변인으로 변환한 뒤 분석에 투입하였고, 마지막으로 연구 변인인 교수행동(X), 학습몰입(Y), 감성지능(W)은 연속형 변인이다.

<표 6> 인구통계학 변인, 교수행동, 학습몰입, 감성지능의 상관관계

| 변인              |                      |                | X       | W      | Y       |
|-----------------|----------------------|----------------|---------|--------|---------|
| X               | 교수행동                 |                | 1       | -      | -       |
| W               | 감성지능                 |                | .744**  | 1      | -       |
| Y               | 학습몰입                 |                | .561**  | .624** | 1       |
| 인구<br>통계학<br>변인 | 성별                   |                | -.113*  | -.138* | -.132*  |
|                 | 연령                   | D.만 40세 이하     | -.093   | -.109  | -.093   |
|                 |                      | D.만 41세~50세    | -.048   | -.065  | -.012   |
|                 |                      | D.만 51세~60세    | .107    | .128*  | .074    |
|                 |                      | D.만 61세 이상     | .043    | .057   | .040    |
|                 | 최종<br>학력             | D.고졸이하         | -.062   | -.089  | -.119*  |
|                 |                      | D.전문대졸         | -.095   | .001   | -.083   |
|                 |                      | D.4년제대학 졸업 이상  | .132*   | .076   | .172**  |
|                 | 직업                   | D.직장인          | .146*   | .000   | .136*   |
|                 |                      | D.자영업(프리랜서 포함) | -.042   | .071   | -.014   |
|                 |                      | D.학생           | -.283** | -.135* | -.292** |
|                 |                      | D.가사종사자        | -.019   | -.024  | .017    |
|                 |                      | D.무직           | .019    | .026   | -.021   |
|                 |                      | D.기타           | .106    | .041   | .087    |
|                 | 평균연간<br>평생학습<br>참여경험 | D.1번 이하        | .082    | -.040  | .092    |
|                 |                      | D.1~3번         | .063    | -.002  | .036    |
|                 |                      | D.4번 이상        | -.140*  | .036   | -.119*  |

| 변인 |                          |          | X       | W      | Y      |
|----|--------------------------|----------|---------|--------|--------|
|    | 전체<br>평생학습<br>참여기간       | D.3개월 이하 | .074    | -.034  | .018   |
|    |                          | D.6개월~1년 | .003    | -.132* | -.035  |
|    |                          | D.1년~2년  | .004    | .062   | .006   |
|    |                          | D.2년~3년  | -.104   | .005   | -.077  |
|    |                          | D.3년~5년  | -.036   | -.003  | -.016  |
|    |                          | D.5년 이상  | .065    | .098   | .107   |
|    | 평생학습<br>참여 동기            | D.목표지향   | -.095   | -.002  | -.081  |
|    |                          | D.활동지향   | .081    | .043   | .047   |
|    |                          | D.학습지향   | .024    | -.032  | .038   |
|    | 참여<br>평생교육<br>프로그램<br>분야 | D.기초문해교육 | .004    | -.042  | -.074  |
|    |                          | D.학력보완교육 | -.190** | -.127* | -.114* |
|    |                          | D.직업능력교육 | .081    | .021   | -.009  |
|    |                          | D.문화예술교육 | .015    | .057   | -.016  |
|    |                          | D.인문교양교육 | .020    | .059   | .118*  |
|    |                          | D.시민참여교육 | -.010   | -.041  | .036   |
|    | 결혼여부                     |          | -.120*  | -.035  | -.118* |

## 2. 연구 가설 검증 결과

본 연구는 성인학습자가 인식하는 평생교육 강사의 교수행동과 성인학습자의 학습몰입 간의 관계에 미치는 평생교육 강사 감성지능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조절 효과 검증을 위하여 PROCESS macro 4.2를 활용하였다. 조절 효과를 검증하는 Model 1을 적용하였으며 독립변인(X)에는 교수행동, 종속변인(Y)에는 학습몰입, 그리고 조절변인(W)에는 감성지능을 투입하였다(평균중심화 적용). 통제 변인으로는 앞선 학습몰입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성별, 최종학력, 직업, 참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야, 평생학습 참여경험을 활용하였다. 이때 감성지능은 자기감성이해, 타인감성이해, 감성활용, 감성조절 하위변인별로 투입하여 각각의 조절효과를 실증하였다. 그리고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Bootstrap 10,000회, 유의수준 5%(신뢰구간 95%)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 강사의 교수행동(X)은 학습몰입(Y)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p < .001$ ), 평생교육 강사의 감성지능(W: 자기감성이해) 역시 학습몰입(Y)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또한 교수행동과 감성지능의 상호작용항(XW)은 학습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 < .001$ ). 또한 투입 시 설명력의 증가분( $\Delta R^2$ )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따라서 평생교육 강사의

감성지능(자기감성이해)은 교수행동과 학습몰입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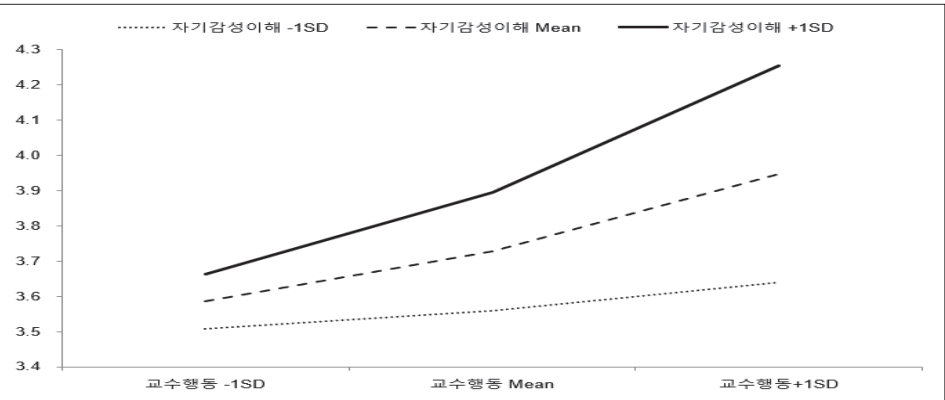
〈표 7〉 교수행동과 학습몰입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자기감성이해)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

| 구분                           | B                     | S.E. | t-value | p      | LLCI  | ULCI   |
|------------------------------|-----------------------|------|---------|--------|-------|--------|
| 상수                           | 3.890                 | .089 | 43.648  | < .001 | 3.715 | 4.066  |
| 교수행동                         | .252                  | .050 | 5.011   | < .001 | .153  | .351   |
| 감성지능(자기감성이해)                 | .236                  | .045 | 5.291   | < .001 | .148  | .324   |
| 상호작용항                        | .214                  | .056 | 3.811   | < .001 | .104  | .325   |
| 성별                           | -.113                 | .052 | -2.149  | .032   | -.216 | -0.010 |
| D. 학력보완교육                    | .053                  | .094 | .564    | .573   | -.132 | .238   |
| D. 직업능력교육                    | .060                  | .057 | 1.068   | .286   | -.051 | .172   |
| D. 문화예술교육                    | .038                  | .053 | .726    | .468   | -.065 | .142   |
| D.고졸이하                       | -.086                 | .063 | -1.369  | .172   | -.211 | .038   |
| D.4년제 졸업이상                   | -.046                 | .059 | -.782   | .435   | -.161 | .070   |
| D. 직업(직장인)                   | -.074                 | .053 | -1.401  | .162   | -.178 | .030   |
| D. 직업(학생)                    | .048                  | .095 | .505    | .614   | -.139 | .235   |
| D.4변이상                       | .122                  | .050 | 2.438   | .015   | .024  | .221   |
| R <sup>2</sup> {F-value(p)}  | .4381{18.644(< .001)} |      |         |        |       |        |
| ΔR <sup>2</sup> {F-value(p)} | .0284{14.526(< .001)}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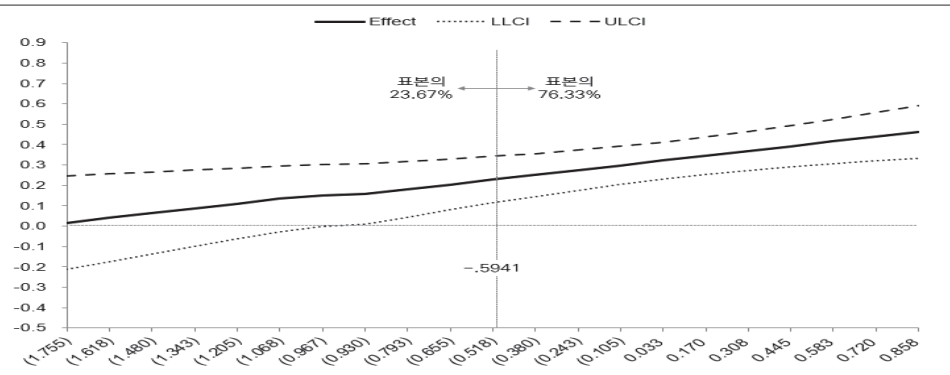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교수행동은 학습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데, 성인학습자들이 감성지능(자기감성이해)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교수행동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정적 영향을 더욱 증폭시키는 강화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배병렬, 2021). 그리고 상호작용항(XW)의 계수를 통해 감성지능 수준이 한 단위(1점) 증가할 때 교수행동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조건부 효과는 .214씩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감성지능(자기감성이해)(W)에 의존하여 교수행동(X)이 학습몰입(Y)에 미치는 효과는 감성지능(자기감성이해)(W)이 높아질수록 .0924→.2532→.4140으로 증가하며, 평균과 +1SD에서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 < .001$ ).

[그림 2]는 교수행동(X)과 감성지능(자기감성이해)(W)의 평균과 평균으로부터  $\pm 1$  표준편차의 값을 이용하여 교수행동(X)과 학습몰입(Y)의 관계에 대한 감성지능(자기감성이해)(W)의 조절효과 패턴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감성지능(자기감성이해)이 +1SD일 경우에 평균이나 -1SD 일 때 보다 기울기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나, 감성지능(자기감성이해)(W)이 높아질수록 교수행동(X)이 학습몰입(Y)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림 3]은 감성지능(자기감성이해)(W)에 의존한 교수행동(X)이 학습몰입(Y)에 미치는

조건부 효과의 변화 양상 및 통계적 유의성 영역을 확인하기 위해 Johnson-Neyman(이하 JN)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조건부 효과는 최소 -.2292에서 최대 .5211까지 점증하였으며, 감성지능(자기감성이해)(W)가 대략 -.5941이상일 때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다. 이 구간에 속하는 표본의 비율은 약 76.33%이다.



[그림 2] 교수행동과 학습몰입의 관계에 대한 감성지능(자기감성이해)의 조절효과 패턴



[그림 3] 감성지능(자기감성이해)에 의존하여 교수행동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조건부 효과의 변화 양상 및 유의영역

주) X축은 감성지능(자기감성이해), Y축은 교수행동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조건부 효과 크기임.

둘째, 평생교육 강사의 교수행동(X)은 학습몰입(Y)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p < .001$ ), 평생교육 강사의 감성지능(타인감성이해)(W) 역시 학습몰입(Y)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또한 교수행동과 감성지능(타인감성

이해)의 상호작용항(XW)은 학습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 < .001$ ). 또한 투입 시 설명력의 증가분( $\Delta R^2$ )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따라서 평생교육 강사의 감성지능(타인감성이해)은 교수행동과 학습몰입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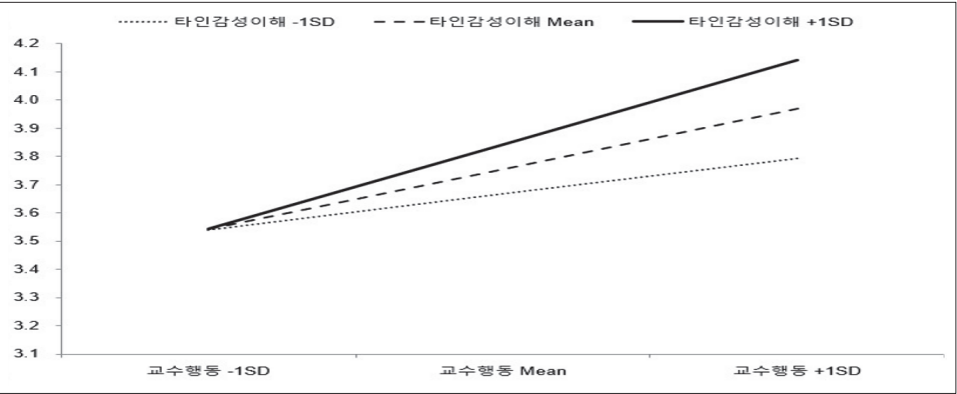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교수행동은 학습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데, 성인학습자들이 감성지능(타인감성이해)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교수행동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정적 영향을 더욱 증폭시키는 강화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호작용항(XW)의 계수를 통해 감성지능 수준이 한 단위(1점) 증가할 때 교수행동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조건부 효과는 .219씩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감성지능(타인감성이해)(W)에 의존하여 교수행동(X)이 학습몰입(Y)에 미치는 효과는 감성지능(타인감성이해)(W)이 높아질수록 .2137→.3581→.5025로 증가하며, -1SD, 평균, +1SD에서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 < .001$ ).

〈표 8〉 교수행동과 학습몰입의 관계에서 감성지능(타인감성이해)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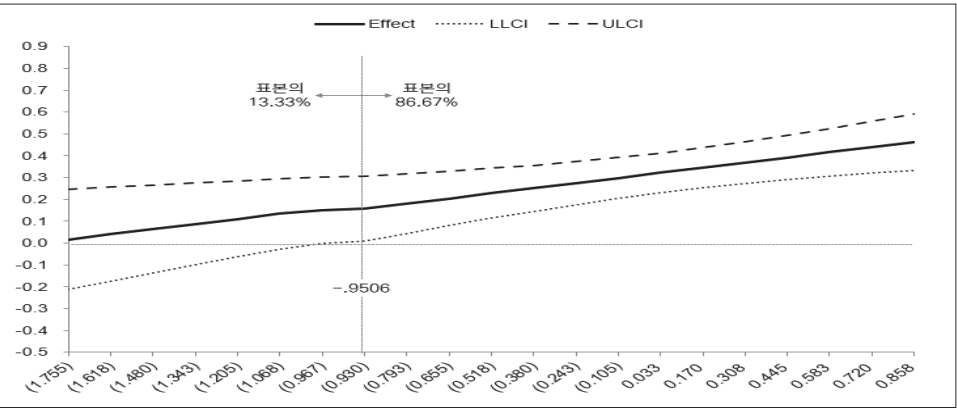
| 구분                          | B                      | S.E. | t-value | p      | LLCI  | ULCI  |
|-----------------------------|------------------------|------|---------|--------|-------|-------|
| 상수                          | 3.879                  | .093 | 41.592  | < .001 | 3.695 | 4.062 |
| 교수행동                        | .358                   | .048 | 7.404   | < .001 | .263  | .453  |
| 감성지능(타인감성이해)                | .133                   | .042 | 3.187   | .002   | .051  | .216  |
| 상호작용항                       | .219                   | .056 | 3.905   | < .001 | .109  | .330  |
| 성별                          | -.100                  | .054 | -1.849  | .066   | -.206 | .006  |
| D. 학력보완교육                   | .032                   | .098 | .330    | .742   | -.160 | .224  |
| D. 직업능력교육                   | .047                   | .059 | .799    | .425   | -.068 | .162  |
| D. 문화예술교육                   | .050                   | .055 | .922    | .357   | -.057 | .158  |
| D. 고졸이하                     | -.084                  | .066 | -1.276  | .203   | -.213 | .046  |
| D. 4년제 졸업이상                 | -.030                  | .061 | -.496   | .621   | -.150 | .090  |
| D. 직업(직장인)                  | -.053                  | .055 | -.963   | .336   | -.160 | .055  |
| D. 직업(학생)                   | .002                   | .093 | .022    | .982   | -.181 | .185  |
| D. 4번이상                     | .116                   | .053 | 2.204   | .028   | .012  | .219  |
| R <sup>2</sup> [F-value(p)] | .3962(15.6957(< .001)) |      |         |        |       |       |
| $\Delta R^2$ [F-value(p)]   | .0321(15.250(< .001))  |      |         |        |       |       |

[그림 4]는 교수행동(X)과 감성지능(타인감성 이해)(W)의 평균과 평균으로부터  $\pm 1$  표준편차의 값을 이용하여 교수행동(X)과 학습몰입(Y)의 관계에 대한 감성지능(타인감성 이해)(W)의 조절 효과 패턴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감성지능(타인감성 이해)이 +1SD

일 경우에 평균이나 -1SD 일 때 보다 기울기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나, 감성지능(타인감성 이해)(W)이 높아질수록 교수행동(X)이 학습몰입(Y)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림 5]는 감성지능(타인감성 이해)(W)에 의존한 교수행동(X)이 학습몰입(Y)에 미치는 조건부 효과의 변화 양상 및 통계적 유의성 영역을 확인하기 위해 Johnson-Neyman (이하 JN)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조건부 효과는 최소 -.0749에서 최대 .5831까지 점증하였으며, 감성지능(타인감성 이해)(W)가 대략 -.9506이상일 때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다. 이 구간에 속하는 표본의 비율은 약 86.67%이다.



[그림 4] 교수행동과 학습몰입의 관계에 대한 감성지능(타인감성이해)의 조절효과 패턴



[그림 5] 감성지능(타인감성이해)에 의존하여 교수행동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조건부 효과의 변화 양상 및 유의영역

주) X축은 감성지능(타인감성이해), Y축은 교수행동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조건부 효과 크기임.

셋째, 평생교육 강사의 교수행동(X)은 학습몰입(Y)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p < .001$ ), 평생교육 강사의 감성지능(감성활용)(W) 역시 학습몰입(Y)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또한 교수행동과 감성지능(감성활용)의 상호작용항(XW)은 학습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 < .001$ ). 또한 투입 시 설명력의 증가분( $\Delta R^2$ )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 = .0039$ ). 따라서 평생교육 강사의 감성지능(감성활용)은 교수행동과 학습몰입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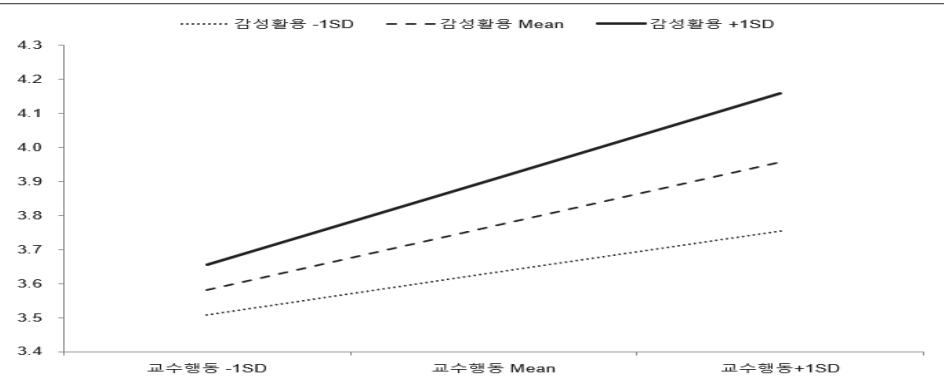
〈표 9〉 교수행동과 학습몰입의 관계에서 감성지능(감성활용)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

| 구분                        | B                     | S.E. | t-value | p      | LLCI  | ULCI  |
|---------------------------|-----------------------|------|---------|--------|-------|-------|
| 상수                        | 3.898                 | .091 | 42.971  | < .001 | 3.720 | 4.077 |
| 교수행동                      | .316                  | .047 | 6.777   | < .001 | .224  | .408  |
| 감성지능(감성활용)                | .220                  | .042 | 5.174   | < .001 | .136  | .303  |
| 상호작용항                     | .170                  | .059 | 2.907   | .004   | .055  | .286  |
| 성별                        | -.102                 | .054 | -1.896  | .059   | -.207 | .004  |
| D. 학력보완교육                 | -.022                 | .097 | -.225   | .822   | -.212 | .169  |
| D. 직업능력교육                 | .040                  | .057 | .689    | .491   | -.073 | .153  |
| D. 문화예술교육                 | .059                  | .054 | 1.097   | .274   | -.047 | .165  |
| D. 고졸이하                   | -.058                 | .065 | -.891   | .374   | -.185 | .070  |
| D. 4년제 졸업이상               | -.043                 | .060 | -.726   | .469   | -.161 | .074  |
| D. 직업(직장인)                | -.065                 | .054 | -1.212  | .226   | -.171 | .041  |
| D. 직업(학생)                 | -.027                 | .092 | -.292   | .770   | -.207 | .154  |
| D. 4번이상                   | .140                  | .051 | 2.736   | .007   | .039  | .240  |
| $R^2$ {F-value(p)}        | .4155{17.002}(< .001) |      |         |        |       |       |
| $\Delta R^2$ {F-value(p)} | .0172{8.4531}(.0039)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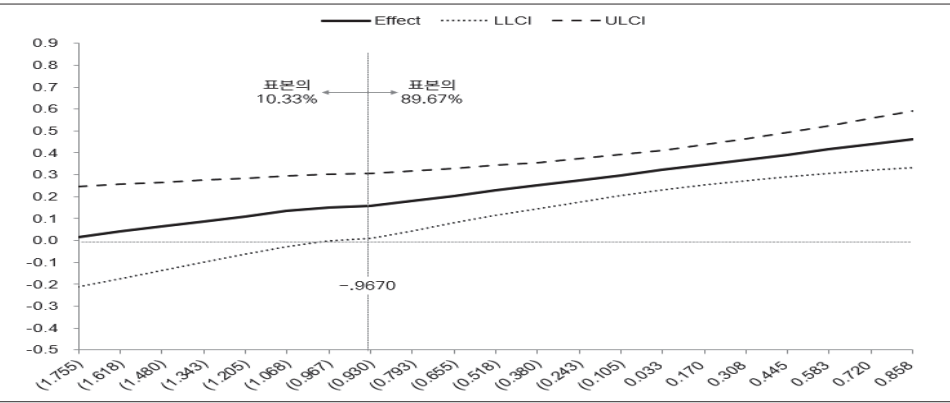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교수행동은 학습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데, 성인학습자들이 감성지능(감성활용)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교수행동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정적 영향을 더욱 증폭시키는 강화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배병렬, 2021). 그리고 상호작용항(XW)의 계수를 통해 감성지능 수준이 한 단위(1점) 증가할 때 교수행동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조건부 효과는 .170씩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감성지능(감성활용)(W)에 의존하여 교수행동(X)이 학습몰입(Y)에 미치는 효과는 감성지능(감성활용)(W)이 높아질수록 .2087→.3160→.4233로 증가하며, -1SD, 평균, +1SD에서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 < .001$ ).

[그림 6]은 교수행동(X)과 감성지능(감성활용)(W)의 평균과 평균으로부터  $\pm 1$  표준편차의 값을 이용하여 교수행동(X)과 학습몰입(Y)의 관계에 대한 감성지능(감성활용)(W)의 조절 효

과 패턴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감성지능(감성활용)이 +1SD일 경우에 평균이나 -1SD 일 때 보다 기울기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나, 감성지능(감성활용)(W)이 높아질수록 교수행동(X)이 학습몰입(Y)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림 6은 감성지능(감성활용)(W)에 의존한 교수행동(X)이 학습몰입(Y)에 미치는 조건부 효과의 변화 양상 및 통계적 유의성 영역을 확인하기 위해 Johnson-Neyman(이하 JN)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조건부 효과는 최소 .0171에서 최대 .4855까지 점증하였으며, 감성지능(감성활용)(W)가 대략 -.9670이상일 때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다. 이 구간에 속하는 표본의 비율은 약 89.67%이다.



[그림 6] 교수행동과 학습몰입의 관계에 대한 감성지능(감성활용)의 조절효과 패턴



[그림 7] 감성지능(감성활용)에 의존하여 교수행동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조건부 효과의 변화 양상 및 유의영역  
주) X축은 감성지능(감성활용), Y축은 교수행동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조건부 효과 크기임.

마지막으로 평생교육 강사의 교수행동(X)은 학습몰입(Y)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p < .001$ ), 평생교육 강사의 감성지능(감성조절)(W) 역시 학습몰입(Y)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그러나 교수행동과 감성지능(감성조절)의 상호작용항(XW)은 학습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 = .1789$ ). 또한 투입 시 설명력의 증가분( $\Delta R^2 = .0036$ )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1789$ ). 따라서 평생교육 강사의 감성지능(감성조절)은 교수행동과 학습몰입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교수행동과 학습몰입의 관계에서 감성지능(감성조절)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

| 구분                          | B                     | S.E. | t-value | p      | LLCI  | ULCI  |
|-----------------------------|-----------------------|------|---------|--------|-------|-------|
| 상수                          | 3.901                 | .090 | 43.543  | < .001 | 3.724 | 4.077 |
| 교수행동                        | .280                  | .047 | 5.921   | < .001 | .187  | .373  |
| 감성지능(감성조절)                  | .248                  | .039 | 6.304   | < .001 | .171  | .325  |
| 상호작용항                       | .074                  | .055 | 1.348   | .179   | -.034 | .181  |
| 성별                          | -.094                 | .053 | -1.784  | .075   | -.197 | .010  |
| D. 학력보완교육                   | -.021                 | .095 | -.219   | .827   | -.207 | .166  |
| D. 직업능력교육                   | .045                  | .057 | .786    | .433   | -.067 | .156  |
| D. 문화예술교육                   | .081                  | .054 | 1.509   | .132   | -.025 | .186  |
| D. 고졸이하                     | -.093                 | .063 | -1.470  | .143   | -.218 | .032  |
| D. 4년제 졸업이상                 | -.055                 | .059 | -.933   | .351   | -.171 | .061  |
| D. 직업(직장인)                  | -.048                 | .053 | -.905   | .367   | -.152 | .056  |
| D. 직업(학생)                   | .071                  | .093 | .763    | .446   | -.112 | .253  |
| D. 4번이상                     | .133                  | .051 | 2.634   | .009   | .034  | .232  |
| R <sup>2</sup> {F-value(p)} | .4295{18.002(< .001)} |      |         |        |       |       |
| $\Delta R^2$ {F-value(p)}   | .0036{1.8159(.1789)}  |      |         |        |       |       |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얻은 감성지능(자기감성 이해, 타인감성 이해, 감성활용)이 갖는 교수행동과 학습몰입의 관계에 대한 조절 효과의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Cohen(1992)가 제안한 공식을 통하여 조절 효과의 효과 크기를 산출하였고, 공식은 다음과 같다. 얻어진 조절 효과의 효과 크기 해석은 Aguinis 외(2005)의 0.005 정도면 작은, 0.01 정도면 중간, 0.025 이상이

면 큰 효과 크기로 판단하는 기준을 적용하였다.

$$f^2 = \frac{R_2^2 - R_1^2}{1 - R_2^2}$$

$R_2^2$  = 상호작용 항이 있는 모델의  $R^2$  값

$R_1^2$  = 상호작용 항이 없는 모델의  $R^2$  값

먼저 감성지능(자기감성이해)의 조절효과 크기( $f^2$ )는 .12로 산출되어 큰 크기의 효과크기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R_2^2=.4381$ ,  $R_1^2=.366$ ). 둘째, 감성지능(타인감성이해)의 조절효과 크기( $f^2$ )는 .09로 산출되어 큰 크기의 효과크기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R_2^2=.3962$ ,  $R_1^2=.336$ ). 마지막으로 감성지능(감성활용)의 조절효과 크기( $f^2$ )는 .08로 산출되어 큰 크기의 효과크기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R_2^2=.4155$ ,  $R_1^2=.365$ ).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공공영역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평생교육 강사의 교수행동 및 감성지능 수준을 확인하고, 교수행동과 학습몰입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의 조절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각 변인 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제공하고, 나아가 성인학습자의 학습성과 제고를 위한 평생교육 현장에의 실천적인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먼저 가설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이론적 논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가설 1 검증 결과, 성인학습자들이 인식하는 평생교육 강사의 교수행동은 그들의 학습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평생교육 강사가 성인학습자의 정서적 요구를 이해하고, 체계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할 때 학습몰입이 강화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교수행동과 학습자의 적극적 참여 및 몰입 간의 관계를 실증한 선행연구들의 논의와도 일치한다. 특히 권대봉 외(2008)는 교수자의 교수행동 특성이 성인학습자의 학습몰입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확인한 바 있으며, 공숙희 외(2025)와 김규

영과 이희수(2021)의 연구에서도 강사의 수업 운영 방식과 상호작용이 성인학습자의 학습몰입 수준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공공영역 평생교육 프로그램 맥락에서 재검증함으로써 교수행동-학습몰입 관계의 일반화 가능성을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공영역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특정 직무나 소속 기관과 무관하게 다양한 연령대와 사회경제적 배경을 지닌 성인학습자가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어 학습자 구성이 이질적이라는 특성을 지니는데, 이처럼 학습자 특성이 다양한 맥락에서도 교수행동이 학습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는 것은 학습자의 이질적 특성이 보다 폭넓은 공공영역의 평생교육 맥락에서도 성립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평생교육 강사가 교수행동을 통해 수업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성인학습자의 필요에 맞는 자료를 제공하며, 학습 동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전략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성인학습자의 학습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수업 목표 제시, 피드백 제공, 학습 동기 유발 등의 행동이 성인학습자가 학습에 완전히 몰두하는 상태를 형성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노가운, 2016; 박경은, 2022).

둘째, 연구 가설 2 검증 결과, 성인학습자가 인식하는 평생교육 강사의 감성지능 중 자기감성 이해, 타인감성 이해와 감성활용은 교수행동과 학습몰입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교수행동은 학습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데, 성인학습자들이 인식하는 평생교육 강사의 감성지능 중 자기감성 이해, 타인감성 이해, 감성활용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교수행동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정적 영향을 더욱 증폭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배을규 외(2017)와 양일빙과 박재용(2023)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코칭 및 사내 멘토링 제도 맥락에서 강사의 감성지능이 그들의 학습 성과 및 직무 성과 경로를 조절한다는 것을 평생교육 및 성인학습의 맥락에서 감성지능의 조절효과를 실증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Mayer와 Salovey(1995)의 감성지능 이론의 관점에서 감성지능이 정서적 조절과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환경에서 몰입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이론적 논의를 평생교육 맥락에서 입증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평생교육 강사의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교수행동과 학습몰입의 긍정적인 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절하여 성인학습자의 몰입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성인학습자들이 평생교육 강사의 정서적 지원과 배려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교수행동의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평생교육 강사는 평생교육 장면에서 자신의 감정과 성인학습자들인 타인의 감

정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 상황에 맞는 감정을 활용하여 교수행동을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강사의 감성지능 교육과 역량 강화가 학습몰입을 촉진하는 중요한 전략임을 시사하며, 평생교육 현장에서 성인학습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평생교육 강사의 감성지능 4개 하위 요인 중 감성조절은 교수행동과 학습몰입의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하위 요인별로 조절 효과의 양상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는 평생교육 강사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드러나는 것보다는 평생교육 강사 스스로 내적 정서 관리에 보다 밀접하게 관련이 된 감성지능의 하위 변인임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감성지능을 자기감성이해, 타인감성이해, 감성활용, 감성조절의 하위요인별로 구분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감성지능의 어떤 세부 차원이 교수행동과 학습몰입의 관계를 강화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감성지능을 단일 지표로 다룬 기존 선행연구와 차별화되는 학술적 기여를 지닌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학습몰입 증진을 위한 평생교육 강사의 역량 확보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평생교육 강사의 교육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한 평생교육 강사의 교수행동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평생교육 강사 선발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교수학습 내용에 대한 내용적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성인학습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교수행동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인학습자들의 감성을 파악할 수 있는지 등의 역량이 성인학습자의 학습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교수행동 체크리스트 기반 강사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생교육 강사들의 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지역평생교육진흥원 차원에서 강사의 효과적인 교수행동 증진을 위한 정기적 연수나 워크숍을 실시하고, 강사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평생교육 강사의 감성지능 강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성지능 중 자기감성 이해, 타인감성 이해, 감성활용이 높을수록 교수행동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평생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감성지능 향상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평생교육 강사가 자신과 성인학습자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지지함으로써 성인학습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학습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 현장에서 활동 중인 평생교육 강사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감성지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지역 평생교육진흥원이나 개별 평생교육기관 차원에서 평생교육 강사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감성지능 개발을 위한 워크숍과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현재의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는 생성형 AI의 활용과 같은 최신의 기술 변화에 따른 학습 내용에 보다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평생교육 교수학습 장면에서 평생교육 강사의 감성지능의 중요성을 확인한 만큼, 공감 훈련 및 개별적 배려를 기반으로 하는 성인학습자와의 관계 형성을 위한 워크숍과 세미나를 제공하고, 실제 평생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 역량을 강화해줄 필요가 있다.

셋째, 평생교육 강사와 성인학습자 간 정서적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 강사가 성인학습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기회를 확대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평생교육기관 홈페이지나 별도 채널을 통한 온오프라인 학습커뮤니티를 운영하여 강의와 관련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평생교육기관 차원에서 강사에게 소규모 그룹 활동이나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요청하여 강사와 성인학습자 간 우호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상호작용을 유도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 결과를 반영한 평생교육 강사 관련 정책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지역 평생교육진흥원 등 관계 기관은 강사 자격 인증 및 보수교육 기준에 교수행동 역량뿐 아니라 감성지능 관련 역량을 함께 포함하도록 하여, 본 연구에서 확인된 교수행동과 감성지능의 상호작용 효과가 실제 강사 양성 및 관리 체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평생교육 강사의 교수행동과 감성지능을 함께 진단할 수 있는 평가 도구 개발 등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성인학습자의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평생교육 강사의 교수행동과 감성지능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성인학습자 개인의 내적 특성(자기주도학습능력 등)이나 평생교육기관의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변인을 포함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설명 범위에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연구 모형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는 특정 광역시 소재 공공영역 평생교육기관의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유의표집하였다. 이에 연구 결과

를 전국의 다양한 유형의 평생교육기관이나 민간 평생교육기관에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다양한 지역과 기관 유형으로 확대하거나, 프로그램 분야와 학습자 집단의 다양성을 고려한 비교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교수행동을 교수적·관리적·사회적·기술적 행동의 4개 하위요인을 통합한 단일 지표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교수행동을 하나의 포괄적 구성개념으로 다루는 데는 유용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하위 행동이 학습몰입에 더 크게 기여하는지를 세밀하게 규명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교수행동의 하위요인별로 학습몰입에 대한 영향력과 감성지능의 조절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보다 정교한 실천적 함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감성지능은 성인학습자가 인식한 평생교육 강사의 감성지능으로 측정되었다는 점에서 강사 본인의 자기보고식 감성지능이나 제3자 평정 방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학습자의 주관적 지각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후속 연구에서는 강사의 자기보고식 감성지능과 학습자가 인식한 감성지능을 함께 측정하여 비교하는 다중 평정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가에 (2022). 평생교육 강사의 역량 및 전문성에 관한 연구 동향. *교육연구*, 37(1), 1-20.
- 공숙희, 임명희, 최이정 (2025).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동기와 평생학습역량 간의 구조적 관계: 자기주도학습과 학습몰입의 이중매개 효과. *교육종합연구*, 23(1), 243-264.
- 국혜수, 윤창국, 허준 (2025). 인공지능시대를 둘러싼 쟁점과 평생교육의 과제 탐색. *평생학습사회*, 21(3), 1-31.
- 권대봉, 배현경, 이현 (2008). 성인평생교육 강사의 교수행동특성과 성인학습자의 학습몰입의 관계 분석-A 기업 사무직의 직무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14(1), 247-269.
- 김계수 (2007).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
- 김규영, 이희수 (2021). 평생학습관 중장년 성인학습자 특성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4), 989-1009.
- 김동률 (2023).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동기가 학습전이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만족의 매개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21), 831-843.
- 김진호 (2003). 성인교육프로그램 참여자의 학습몰입 영향요인에 관한 구조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태리, 이해준, 곽동민 (2026). 성인발레 지도자의 감성적리더십과 카리스마리더십이 수업 몰입 및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학회지*, 26(1), 27-36.
- 김효선 (2021). 실시간 온라인 성인학습자의 인지된 학업성취도와 평생교육 강사 지지 간의 관계: 자기주도학습능력과 학습 실재감의 이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노가윤 (2016). A협회 온라인 직무교육 동영상 강의에서 성인학습자가 인식하는 교수행동과 학습전이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청산 (2018). 소프트 스킬과 하드 스킬의 교육적 함의. *실과교육연구*, 23(1), 1-17.
- 박경은 (2022). 평생교육 프리랜서 강사의 강의경험 의미 탐구. *평생교육 인적자원개발연구*, 1(2), 3-26.
- 박경희, 한상훈 (2016). 평생교육 강사의 핵심 교수역량모델 분석.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6(3), 373-381.
- 박원우, 마성혁, 배수현, 지선영, 이유우, 김자영 (2020). 설문조사에서 불성실 응답의 탐지방법과 제거의 효과. *경영학연구*, 49(2), 331-364.
- 박지현 (2019).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평생교육연구*, 15(2), 123-145.
- 배병렬 (2021). SPSS/PROCESS에 의한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분석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 청람.
- 배을규 (2006). 성인교육의 실천적 기초: 이론과 방법. 서울: 학지사.

- 배을규, 김만수, 김추강 (2017).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멘토링 기능과 경력 몰입 관계에 대한 멘토 감성지능의 조절효과. 기업교육과 인재연구, 19(1), 1-21.
- 백혜현 (2013). K기업 내 교육훈련강사의 교수행동특성과 성인학습자 학습전이와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승호 (2025). 성인학습자가 지각한 평생교육 강사의 감성지능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 효능감의 조절효과.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9(7), 203-213.
- 석지나, 조인철, 조대연 (2023). 비대면 쌍방향 실시간 교육환경에서 학습자가 인식한 평생교육 기관 강사의 교수행동과 학습전이와의 관계. 휴먼웨어연구, 6(1), 1-25.
- 성지선 (2021). 발레 전공 대학생이 인지한 교수 감성지능이 자기효능감, 학습만족, 학업지속의도에 끼치는 영향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32(1), 187-206.
- 성태제, 시기자 (2006). 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 양일빙, 박재용 (2023). 리더의 코칭행동이 긍정적 심리자본의 매개를 통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감성지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경영과 정보연구, 42(4), 69-91.
- 우종필 (2015). 구조방정식모델에서 다차원성 개념의 항목목록 편향에 대한 연구. 경영학연구, 44(4), 1131-1147.
- 유수란, 배을규, 이민영 (2018). 평생교육 강사의 프로티언 경력태도와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 직업교육연구, 37(6), 85-104.
- 유영주, 김진모 (2014). 국내 성인학습자의 학습몰입 영향요인에 관한 통합적 문헌 고찰. 산업교육연구, 29, 1-27.
- 이영희, 현영섭 (2021). 강사의 교수행동이 성인학습자의 학습전이에 주는 영향: 대구의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기업교육과 인재연구, 23(2), 101-134.
- 이은주, 이로미, 장지은 (2022). 초고령화 사회 고등교육 연계 노인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일본의 대학 노인평생교육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성인계속교육연구, 13(3), 91-117.
- 이지혜, 이정학 (2018). 골프 지도자의 감성지능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신뢰, 운동몰입, 지속적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체육학회지, 32(3), 1-19.
- 이효영 (2018).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향. 인문사회 21, 9(4), 1423-1438.
-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23). 2023년 평생학습 개인 실태조사.
- 정무관 (2009). 팀 구성원이 지각하는 상사의 감성지능과 상사 신뢰가 팀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22(5), 2895-2918.
- 정찬길, 배을규, 박상오 (2018). 원격대학 성인학습자의 학습참여동기 유형과 학습몰입 수준의 관계에서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매개효과. 교육문화연구, 24(5), 155-177.
- 정향기 (2022). 학습민첩성과 창의적 문제해결 간의 관계: 무형식 학습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자본 및 감성지능의 조절된 매개효과. HRD 연구, 24(3), 253-289.

- 조설희, 유미나 (2025).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대학 성인학습자 교육 연구 동향 분석. *교육발전*, 45(2), 809-825.
- 주형철, 이민규, 임범규 (2012). 스포츠센터지도자의 감성지능과 업무수행능력의 관계에 대한 연구: 조직시민행동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체육학회지*, 51(2), 249-261.
- 최성수, 권용주 (2012). 리더의 감성지능과 창의성, 신뢰, 집단응집력이 조직유효성과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연구. *관광레저연구*, 24(7), 95-113.
- 통계청 (2024). 2023년 국가평생학습통계.
- Abedi, G., Rostami, F., & Nadi, A. (2015). Analyzing the dimensions of the quality of life in hepatitis B patients using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Global journal of health science*, 7(7), 22-31.
- Aguinis, H., Beaty, J. C., Boik, R. J., & Pierce, C. A. (2005). Effect size and power in assessing moderating effects of categorical variables using multiple regression: A 30-year review.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0(1), 94-107.
- Bar-On, R. (2000). Emotional and social intelligence: Insights from the Emotional Quotient Inventory (EQ-i). In R. Bar-On & J. D. A. Parker (Eds.), *Handbook of emotional intelligence* (pp. 363-388).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Berge, Z. L. (1995). Facilitating computer conferencing: Recommendations from the field. *Educational Technology*, 35(1), 22-30.
- Bílá, M., & Kalenda, J. (2025). Empirical research on motivation in adult education and learning: A scoping review. *European Journal for Research on the Education and Learning of Adults*, 16(3), 289-320.
- Bollen, K. A. (1989). A new incremental fit index for general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17(3), 303-316.
- Borich, G. D. (2000). *Effective teaching methods* (4th ed.). Upper Saddle River, NJ: Merrill.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136-162. Newbury Park: Sage.
- Cattell, R. B., & Horn, J. L. (1978). A check on the theory of fluid and crystallized intelligence with description of new subtest designs. *Journal of Educational Measurement*, 15(3), 139-164.
- Cohen, J. (1992). A power primer. *Psychological Bulletin*, 112(1), 155-159.
- Doll, W. J., & Xia, W. (1997).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end-user computing satisfaction instrument: A replication. *Journal of Organizational and End User Computing(JOEUC)*, 9(2), 24-31.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Why it can matter more than IQ. Bantam Books.
- Goleman, D. (1998). Working with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 Hair, J. F., Jr., Black, W. C., Babin, B. J., & Anderson, R. E. (2019). Multivariate data analysis (8th ed.). Cengage Learning.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Jackson, S. A., & Marsh, H. W. (199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to measure optimal experience: The Flow State Scale.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8(1), 17-35.
- MacCallum, R. C., Browne, M. W., & Sugawara, H. M. (1996). Power analysis and determination of sample size for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Psychological methods, 1(2), 130-149.
- Mayer, J. D., & Salovey, P. (1995).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 construction and regulation of feelings. Applied and Preventive Psychology, 4(3), 197-208.
- Mezirow, J. (2000). Learning to think like an adult: Core concepts of transformation theory. In J. Mezirow & Associates (Eds.), Learning as transformation: Critical perspectives on a theory in progress (pp. 3-33).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Murray, H. G. (1983). Low-inference classroom teaching behaviors and student ratings of college teaching effectivenes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5(1), 138-149.
- Ormell, C. P. (1974). Bloom's taxonomy and the objectives of education. Educational Research, 17(1), 3-18.
- Podsakoff, P. M., MacKenzie, S. B., Lee, J. Y., & Podsakoff, N. P. (2003). Common method biases in behavioral research: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recommended remedi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8(5), 879-903.
- Salovey, P., & Mayer, J. D.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3), 185-211.
- Wheaton, B., Muthen, B., Alwin, D. F., & Summers, G. F. (1977). Assessing reliability and stability in panel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8, 84-136.
- Wong, C. S., & Law, K. S. (2002).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13(3), 243-274.

정소영(제1저자): 인하대학교, 인하 위드아이 청소년 진로지원센터 연구원, jsy0810@inha.ac.kr

박상오(공동저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전문연구원, sopark@krivet.re.kr

배을규(교신저자):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ekbae@inha.ac.kr

논문접수일: 2026년 7월 20일

논문심사일: 2026년 7월 31일

게재확정일: 2026년 8월 31일

*ABSTRACT*

The Moderating Effect of Lifelong Education Instructors'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long Education Instructors' Teaching Behavior and Learning Engagement as Perceived by Adult Learners Participating in Public-Sector Lifelong Education Programs

Jeong, So-Yeong<sup>\*</sup>(Inha With-I Youth Career Support Center),  
Park, Sang-Oh<sup>\*\*</sup>(KRIVET), Bae, Eul-Kyoo<sup>\*\*\*</sup>(Inh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dult learners' learning engagement and their perceptions of lifelong education instructors' teaching behaviors and emotional intelligence, and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behaviors and learning engagement. To this end, teaching behaviors were measured using an instrument categorized by Noh, G. Y. (2016) based on previous studies. Learning engagement was measured using an instrument adapted by Kim, J. H. (2003) for adult learners from the scale developed by Jackson and Marsh (1996). Emotional intelligence was measured using an instrument adapted from Wong and Law (2002). The participants were adult learners enrolled in public-sector lifelong education programs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and data from 300 participants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lifelong education instructors' teaching behavior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adult learners' learning engagement. Second, three dimensions of instructors' emotional intelligence—self-emotion appraisal, others' emotion appraisal, and use of emotion—significantly moderated the relationship

---

\* First author, Inha With-I Youth Career Support Center, jsy0810@inha.ac.kr

\*\* Co-author, KRIVET, sopark@krivet.re.kr

\*\*\* Corresponding author, Inha University, ekbae@inha.ac.kr

between teaching behaviors and learning engagement, whereas regulation of emotion did not show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vides theoretical insights into the relationships among teaching behaviors, emotional intelligence, and learning engagement and offers practical implications for enhancing adult learners' learning engagement in lifelong education settings.

**[Keywords]** Teaching Behavior, Learning Engagement, Emotional Intelligence, Adult Learners, Lifelong Education Instructors